

# 시군관련 주요보도

光州日報

2012년 07월 10일 (화)  
10면 지역



## 장성 수상스포츠 일번지 자리매김

18~20일 전국 조정 선수권대회

장성호서 500여명 참가 열띤 경쟁

제54회 전국 조정 선수권대회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장성호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55개팀 남녀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로 나눠 싱글스컬과 더블스컬, 무타페어, 에이트 등 30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이번 전국조정선수권대회는 지난 2월에 열린 대한조정협회 이사

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그동안 군의 성공적인 전국대회 개최 경험과 경기장 인프라, 유치 열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체육대회와 2009년~2011년 대통령기 전국 조정선수권대회 등 5년 연속 전국 규모의 조정대회를 개최해 명실상부한 수상 스포츠의 일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조정경기장 주변 정비를 시작으로 레인부설 등 조정경기 시설물을 점검하고, 외부 관람객들이 조정경기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내 곳곳에 안내판 및 환영 현수막을 설치를 준비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선수와 임원, 학부모 등 2000여명이 장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수단 환영 및 농·특산품 홍보 등으로 장성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